

神話와 原始宗教의 關係 小考

張 美 卿*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神話 중에 포함된 原始宗教 |
| II. 神話와 原始宗教 | IV. 맺음말 〈參考文獻〉 |

I. 머리말

神話와 原始宗教는 모두 先民들의 觀念形態의 産物이며, 그들의 客觀 세계에 대한 유치한 認識을 반영하고 있다. 先民들은 생존을 위하여 언제나 大自然과 악전고투해야만 했으며, 그들은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자연계를 이해하고자 했고 동시에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神話의 본질은 先民이 자연계에 대처하고 생활에 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하에서 사람들은 늘 自然에 의해 지배되는 무력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수없이 항상 좌절과 실패를 겪어야 했고, 그들의 이상과 희망은 또한 냉혹한 현실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연의 恩賜를 바라고 신령의 保佑하심을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기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原始宗教가 產生된 것이다. 실사 神話와 原始宗教 사이에 구별이 있다 하여도, 이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니, 서로 融화되고 뒤섞여 때로는 분별하기 매우 힘들다. 이는 세계 각 민족의 神話와 原始宗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本稿는 먼저 神話와 原始宗教의 면모에 대하여 고찰한 후에, 神話 속에 포함된 原始宗教의 요소를 여섯 가지 방면 즉, 萬物有靈觀念, 토템 崇拜, 祖上崇拜, 巫術, 靈魂不滅觀念, 宗教祭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神話와 原始宗教

先民들은 自然을 정복하고자 하였으나, 늘 자연에 의해 지배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前者로 인해 神話가 창작되었으며, 後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면에서 原始宗教를 만들게 되었다.¹⁾

神話와 原始宗教는 古代 先民들의 의식 형태이며 사회와 역사의 產物로 人類의 屬性의 발전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 原始宗教와 神話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대다수는 「神話는 원시 사회의 의식 형태의 統一體로 그 안에는 原始宗教를 포괄하고 있다. 적어도 神話와 原始宗教가 산생된 시기에 그 둘은 분화되지 않았으며 統一體였다」²⁾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神話와 原始宗教는 모두 생산력이 극히 낮았던 원시 사회의 기초 위에서 산생되었으므로 의식 형태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神話 중의 自然神에 대한 認識과 原始宗教에서 믿는 神은 대부분 일치한다. 原始宗教 속의 神이 바로 神話 중의 神인 것이다.³⁾

神話는 藝術과 美學의 범주에 속하지만, 원시인의 마음 속에서 神話는

- 1) 白崇人, <試論神話與原始宗教的關係>, <中南民族學院學報>, 1981年, 第二期, p73.
- 2) 潘明茲, <神話與原始宗教源於一個統一體>, <中國少數民族神話論文集>, 廣西民族出版社, 1984年, pp27-39 참고.
- 3) 袁珂主編, <中國神話>, 中國民間文藝出版社, 北京, 1987年, p4.

宗教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中國古代 神話 중에서 原始宗教와 관계없는 神話 作品을 찾을 수 없으며, 原始文學과 관계없는 宗教 活動 또한 찾을 수 없다.

原始宗教의 意識이 神話의 내용 속에 스며들었기에 神話의 내용은 原始宗教의 관념이 된다. 만약 原始宗教의 意識을 없앤다면 神話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神話의 내용을 빼버린다면 原始宗教 또한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神話와 原始宗教의 가장 큰 공통점은 神性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과 神性으로 인간과 자연을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인간과 자연의 화합과 상호교류는 모순된 '幻想的 同一性'을 구성한다.⁴⁾

宗教는 인류 사회의 관념 형태의 하나로서 그 최초의 형식인 原始宗教는 원시인들의 생산력이 낮고 지혜가 깨이지 않은 시기에 생존을 위하여 자연력을 人格化하여 숭배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산생된 것이다. 그리고 원시인의 종교 관념은 원시 사회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원시인들은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힘이 약함을 느끼고, 대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초보 상태의 종교관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原始宗教는 대자연 숭배, 동식물 숭배, 토렘 숭배, 조상 숭배 등의 중요한 단계를 거쳐왔다. 그리고 神話 역시 그 내용에 따라 대자연 신화, 동식물 신화, 토렘 신화, 조상 신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原始宗教의 각 단계의 명칭은 神話의 종류의 명칭과 매우 유사하나, 이것이 神話는 종교로 인하여 산생되었으며 종교가 없었다면 神話 역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神話 역시 원시인의 생산력이 낮고 지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대자연에 대하여 기원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생된 것이다.

4) 陶思炎, <試論神話與原始宗教>, <民間文學論壇>, 1986年 4期 p91 참고.

III. 神話 중에 포함된 原始宗教

1. 神話와 萬物有靈觀

萬物有靈은 가장 원시적인 宗教觀念의 하나로, 原始宗教의 精神的 支柱이다. 先民들의 지식 수준은 매우 빈약하여, 그들은 곧 자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모든 자연현상을 계획적으로 예정된 행동이라 생각했다.⁵⁾ 그리고 山川風雨, 草木蟲獸 등의 모든 것에 영혼 즉 神靈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萬物有靈觀念이다. <禮記>에서 「山林, 川谷, 丘陵 등에 있어서 구름을 내고 바람이나 비를 일으키며, 여러가지의 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모두 神이라고 한다」⁶⁾라고 한 바와 같다. 그리고 수 많은 神靈 중에서 특히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간에게 禍福을 가져올 수 있는 神靈은 敬畏와 崇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선민들은 이러한 神靈과 精怪를 묘사하고 崇奉하여 平安을 기원하기 위하여 여러 형식의 頌歌와 頌詞 및 神話를 만들어냈다.⁷⁾

先民들은 자연현상을 묘사·해석하거나 자신의 理想과 所望을 나타낼 때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神格化'하여 구체적이고 생명이 있는 超自然的 神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日神 羲和, 月神 常羲, 風神 風廉, 雨神 應龍, 春神 句芒, 秋神 蓐收, 鍾山の 神 燭龍, 黃河의 神 河伯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신의 神格과 外形 및 그에 걸맞는 行動이 있다. 또한 그들은 사람과 똑같이 사고할 수 있으며, 감정도 있고, 심지어 자식을 낳아 기를 수도 있다.

神話중의 이러한 超自然的 神은 결코 後代人들이 의식적으로 擬人化의 手法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藝術形象이 아니라, 바로 先民들의 萬物有靈觀念의 反映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영험한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5) 同註2) p74.

6) <禮記·祭法>: 「山林川谷丘陵能出雲, 爲風雨, 見怪物, 皆曰神。」

7) 袁珂 主編, <中國神話>, 中國民間文藝出版社, 北京, 1987年, p4.

않았으며, 神話속의 '故事'는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萬物有靈觀念이 없었다면 神話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神話와 토템 崇拜

토템 崇拜는 自然崇拜와 祖上崇拜가 결합된 原始宗教의 일종으로 이는 先民들의 本氏族의 起源에 대한 探索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先民들은 자신이 어느 自然物⁸⁾의 子孫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연물에 神秘性, 神聖性을 부여했고, 이로부터 토템 崇拜가 산생된 것이며, 토템은 곧 일종의 침범할 수 없는, 또한 氏族(혹은 部族)구성원을 단결시켜 주는 힘이 되었다.

토템(Totem)이라는 어휘는 北美 인디안 부락 연맹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親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토템은 動植物로 氏族의 내력을 해석하고 本氏族과 어느 動植物 사이에 血緣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⁹⁾ 그리고 여기서 발전하여 토템은 氏族의 徽號요 守護神으로서 그 氏族의 숭배를 받았다. 이러한 토템 숭배는 세계 각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해온 原始宗教의 한 形態이다.

토테미즘은 사람과 동물·식물 그리고 자연현상 및 무생물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토테미즘은 母權制 氏族 社會의 발생기에 시작되었다.¹⁰⁾ 당시 사람들은 母系를 중심으로 사회 조직을 만들었고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았다. 이들은 本氏族과 어느 動植物 사이에 血緣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당시의 宗教觀念과 社會生活 및 經濟生活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매우 자연스럽게 어느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 氏族의

8) 대다수가 動物이며 植物이나 구름, 돌 등의 無生物도 있다. 同註2) pp74~75 참고.

9) 楊知勇, <原始宗教與原始文學的情神紐帶>, <雲南民族學院學報>, 1986年3期, p23~24 참고.

10) 袁珂, <神話的起源及其與宗教的關係>, <神話論文集>, 漢京文化事業公司, 台北, 1987年, p57.

토템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씨족 구성원과 토템으로 인정된 동물이나 식물 사이에 親族의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토템 숭배의 宗教儀式과 토템인 동식물을 해치거나 食用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토템숭배가 神話속에 융화되어 때로는 神話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中國 殷族의 기원에 관한 神話이다.

簡狄이 九成臺에 있을때, 帝嚳은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계비가 알을 떨어뜨렸을때, 簡狄은 왜 기뻐하였는가? (簡狄在臺, 嚳何宜? 玄鳥致胎, 女何喜?) 11)

殷나라의 始祖인 契의 어머니는 簡狄인데, 有娥氏의 딸이며 帝嚳의 둘째 부인이었다. 세 사람이 목욕하러 갔다가, 계비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簡狄이 이를 받아삼킨 후 契를 낳았다. (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 12)

이로써 殷族은 계비를 토템으로 삼고 있으며, 계비가 자신들의 조상이라 여기고 神話를 지어내어 후대에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先民들은 本氏族의 토템을 숭배하였고, 이로 인해 일련의 神話들은 토템의 本氏族에 대한 援助와 지혜와 힘을 준것 등을 표현했는데, 大禹가 홍수를 다스린 神話(大禹治水神話)가 그러하다.

또한 先民들은 善神과 惡神이 싸울 때에 本氏族 토템의 울음소리나 동작을 흉내내어 토템신이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기도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杜佑의 <通典>에는 「蚩尤의 부하 魍魎와 黃帝가 涿鹿에서 싸울 때에 黃帝가 병사들에게 소 뿔을 가지고 龍의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여 그를 막아냈다」 13)는 기록이 있다. 龍은 黃帝族의 토템이므로 적과 싸울 때에 龍의 신음소리를 냈던 것이다.

神話속에서, 토템 숭배의 또 다른 표현 형식은 여러가지 氏族神의 外形

11) <楚辭·天問>

12) <史記·殷本紀>

13) 「蚩尤氏帥魍魎與黃帝戰於涿鹿, 帝令吹角作龍吟以御之。」

으로 숭배하는 토템 형상을 삼는다는 것이다.

炎帝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다. (炎帝人身牛首.)¹⁴⁾

犬戎國에는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몸을 한 神이 있는데, 이름은 犬戎이라고 한다. (有犬戎國, 有神人面獸身, 名曰犬戎.)¹⁵⁾

西王母는 그 형상이 사람 같지만,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휘파람을 잘 불며 부시시한 머리에 머리꾸미개를 꽂고 있다. (西王母其狀如人, 豹尾虎齒, 善嘯, 蓬發戴勝.)¹⁶⁾

이러한 神의 外形은 모두 토템 숭배의 색채가 농후하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思惟觀念의 進化에 따라 神話중의 토템신도 완전한 動物 형태에서 半人半獸形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었다. 中國의 古代 神話 중에서 이러한 演變의 過程을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토템 숭배는 神話와 융화 되었으며, 심지어 神話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神話와 祖上崇拜

先民들은 토템 숭배와 靈魂不滅 觀念의 기초위에서 祖上崇拜 思想을 產生시켰다. 그들은 사람은 죽은 뒤에도 지하세계에서 여전히 자기 자손들의 행동을 볼 수 있어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벌을 내린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祖上崇拜가 생겨난 원인이다. 선민들은 항상 자기 조상의 업적을 회상하고 氏族의 根源을 찾았으며, 本氏族에 큰 공헌을 한 조상을 '神'의 대열에 올려놓고 후하게 제사지냈다.

原始宗教의 發展 過程속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점차 깊어지고, 조상을 제사지내는 의식 또한 갈수록 성대해지자, 이에 조상에 대한 제사는 原始宗教의 중요한 祭典중의 하나가 되었다.

14) 《帝王世紀》

15) 《山海經·大荒西經》

16) 《山海經·西山經》

祖上崇拜은 또한 神話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神話 중의 많은 神들은 바로 각 氏族(혹은 部族)의 祖上神인 것이다.

姜嫄이 들에 나갔다가 巨人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그것을 밟고 싶어졌다. 그녀가 발자국을 밟자 마치 아이를 가진 듯이 몸이 꿈틀거렸는데, 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다. (姜嫄出野, 見巨人跡, 心忻然悅, 欲踐之, 踐之而身動, 如孕者, 居期而生子.)¹⁷⁾

이는 周族의 起源神話이다. 周族은 비교적 빨리 유목경제에서 농업경제로 들어선 부족이다. 그래서 周나라 사람들은 后稷을 農神으로 추대하였고 姜嫄과 后稷을 매우 숭배했으며, 그들을 始祖神으로 삼아 제사지냈다.

이외에, 中國 上古神話 중의 '帝'의 최초의 神格 또한 대부분 어느 씨족의 祖上神인데, 예를 들어 黃帝는 원래 '有虞氏'의 氏族 祖上神이며, 炎帝는 中國 中原 지역 한 氏族의 祖上神이며, 伏羲는 陟地의 祖上神이며 望帝는 본시 蜀地의 氏族 祖上神이었다. 이러한 '帝'는 처음에 어느 한 씨족의 조상신에 불과했는데, 후에 이러한 씨족이 발전하여 어느 부족의 핵심이 되자, 이 氏族 祖上神은 곧 部族의 祖上神이 된 것이다. 原始社會 후기에 酋長의 권력이 차츰 강해지고 이것이 神話와 原始宗教 중에 반영되어 天上의 '帝'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帝'의 '神權' 또한 地上 酋長의 권력증대에 따라 강해지게 되자, '帝'는 점차 만물을 통치하는 '天皇上帝'로 추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帝'는 원래 어느 氏族의 祖上神일 따름이다.¹⁸⁾

요컨대, 위의 사실로 보아 神話와 祖上崇拜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神話와 巫術

原始宗教의 또 하나의 구성 성분은 巫術이다. 原始宗教의 모든 의식은

17) <史記·周本紀>

18) 同註2) p76~77 참고.

무술적 색채로 가득 차 있다. 巫術이 적용되는 범위는 처음에는 인간이 자연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인간이 인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¹⁹⁾ 巫術은 원시시대 각 민족의 공동적인 신앙이고, 東西洋 각국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巫術은 지식 수준이 낮은 미개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歐美 社會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선민들은 처음에 사람과 神이 서로 왕래하고 통할 수 있다고 여겼으니, 이른바 「사람과 神이 同位이며, 사람과 神이 뒤섞인 것」²⁰⁾이다. 그러나 原始宗教는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니, 「神」의 지위가 점점 높아져 사람과 神 사이는 「雜糅」에서 「不雜」으로 변하게 되었다. 《尙書·呂刑》에 이르기를, 「皇帝……重과 黎에게 명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를 끊도록 하였다」²¹⁾라고 하였고, 郭璞의 《山海經·大荒西經》注에는 「옛날에 神과 인간이 뒤섞여 구별이 없었는데, 顓頊이 重에게 명하여 하늘은 神에 속하게 하고, 黎에게 명하여 땅은 사람에게 속하게 하였다」²²⁾라고 하여 「人神雜擾」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神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임무를 맡은 「巫(殞)」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巫는 그 神職을 실행하기 위해 巫術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巫術을 이용하여 神에게 기도하고 神靈의 保佑하심을 구하며, 病者를 치료하기도 하고, 鬼神을 쫓고 魂을 부를 수도 있었으며, 吉凶을 점칠 수도 있었다. 특히 원시사회 후기와 노예사회에서 巫는 매우 높은 지위와 權力이 있었는데, 유명한 巫는 심지어 「巫神」이나 「巫帝」로 추대되었다.

原始宗教 중의 巫는 또한 神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 巫術 역시 神話의 중요한 제재가 된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巫咸國이 女丑의 북쪽에 있다. 무당들이 오른손에는 푸른 뱀을, 왼손에는 붉은 뱀을 쥐고 登葆山에 있는데, 이 곳은 여러 무당들이 하늘로

19) 同註11) p59 참고.

20) 《國語·楚語下》:「民神同位, 民神雜糅。」

21) 「皇帝……乃命重黎絕地天通。」

22) 「古者人神雜擾無別, 顓頊乃命南正重司天以屬神, 命火正黎司地以屬民。」

오르내리는 곳이다. (巫咸國, 在女丑北. 右手操青蛇, 在登葆山, 群巫所從上下也.)²³⁾

靈山이 있는데 巫咸, 巫卽, 巫盼, 巫彭, 巫姑, 巫真, 巫禮, 巫抵, 巫謝, 巫羅 등 열 명의 무당이 여기에서 오르내리며, 온갖 藥이 이곳에 있다. (有靈山, 巫咸·巫卽·巫盼·巫彭·巫姑·巫真·巫禮·巫抵·巫謝·巫羅, 十巫從此升降, 百藥爰在.)²⁴⁾

黃帝가 전쟁에 나가려 함에, 巫咸에서 점을 쳤다. (黃帝將戰, 筮於巫咸.)²⁵⁾

女丑을 산 채로 열 개의 태양이 구워 죽이고 있다. 丈夫의 북쪽에 있으며 오른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열 개의 태양이 공중에 떠있고 女丑은 산 위에 있다. (女丑之尸, 生而十日炙殺之. 在丈夫北, 以右手障其面. 十日居上, 女丑居山之上.)²⁶⁾

招魂 또한 巫術의 일종인데, 여기에도 神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魂魄이여, 돌아오소서! 南方에 거하실 수 없사오니, 그 곳의 사람들은 이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람 고기로 제사지내고 그 뼈로는 젓갈을 담습니다. 큰 뱀이 사방에 널려 있고 여우가 천리에 늘어서 있습니다. 머리 아홉 달린 독사가 눈 깜짝 할 사이에 달려들어 사람을 잡아 포식하여 독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그 곳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됩니다. (魂兮歸來, 南方不可以止些. 靡顏黑齒, 得人肉以祀, 以其骨爲醢些. 蝮蛇蓂莢, 封狐千里些. 雄虺九首, 往來儻忽, 吞人以益其心些. 歸來兮, 不可以久淫些.)²⁷⁾

여기에서 '黑齒', '靡顏', '雄虺', '蝮蛇', '封狐' 등은 모두 神話 중의 人物과 精靈인 것이다.

그리고 先民들은 특히 言語의 힘을 迷信하여 呪文은 巫術의 한 표현 형식이 되었으며, 原始宗教 중의 이 呪文 또한 神話 중에 내포되어 있다. 한 예로 '黃帝와 蚩尤의 戰爭'에 관한 神話를 보면, 「魃이 다시 하늘로 올라

23) <山海經·海外西經>

24) <山海經·大荒西經>

25) 張澍注<世本>引<歸藏易>

26) <山海經·海外西經>

27) <楚辭·楚魂>

갈 수 없게 되자, 그가 머무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叔均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아뢰자, 후에 그녀를 赤水의 북쪽에 옮겨 살게 하였는데, 魃이 때때로 그곳을 빠져나오면 그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은 『神이여! 북쪽으로 돌아가소서』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우선 물길을 깨끗하게 하고, 크고 작은 도랑을 터서 통하게 해놓았다.²⁸⁾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보이는 '神北行'이 바로 旱魃을 쫓는 呪文인 것이다.

5. 神話와 靈魂不滅觀念

鬼魂崇拜은 원시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靈魂不死 觀念에서 나온 것이다. 원시인들은 모든 사물에는 精靈이나 生氣가 있으며 사람 또한 그러하다고 믿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뒤에 사람의 生氣와 힘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鬼魂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사람이 잠이 들면 육체 활동은 정지하지만 육체 외에 靈魂(Soul)이 있어 활동하고 다니며, 사람이 죽은 뒤의 靈魂이 바로 鬼魂(Ghost)인 것이다.²⁹⁾

先民들은 자신의 身體 構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思惟와 感覺은 身體의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生時에는 肉體에 거하고 죽은 후에는 肉體와 분리되는 독특한 靈魂의 活動이라고 여겼는데 靈魂不滅 觀念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³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鬼라고 하였고」³¹⁾ '鬼'의 관념이 先民들의 머리 속에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세계 이외에 귀신의 세계인 '冥界'가 있다고 생각했다.

선민들의 이러한 靈魂不滅 觀念 및 冥界가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이 그들이 창조해낸 神話 중에 반영되었다.

28) <山海經·大荒西經>:「魃不得復上, 所居不雨. 叔均言之帝, 後置之赤水之北. 魃時亡之. 所欲逐之者, 令曰:『神北行』, 先除水道, 決通溝瀆.」

29) 釋聖嚴, <比較宗教學>, 中華書局, 台北, 1969年, p16.

30) 同註2) pp75~76 참고.

31) <禮記·祭法>:「人死曰鬼」

동쪽으로는 四層으로 이루어진 恒山이 바라다 보인다. 有窮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각기 산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東望恒山四成, 有窮鬼居之, 各在一搏.)³²⁾

鬼神이 있으면 반드시 鬼神이 사는 곳인 陰間冥界가 있기 마련인데, <山海經>에는 「北海에 幽都라는 산이 있다」³³⁾라고 하였고, <楚辭>에는 「魂魄이여, 돌아오소서! 그대는 幽都로 가시면 안됩니다. 그 곳에는 土伯이 있으니, 아홉개의 꼬리가 달렸고 머리에는 날카로운 뿔이 났으며, 두툼한 등짝과 피로 물든 손가락을 한 채 손살같이 사람을 쫓아와 놓아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 개의 눈과 호랑이 머리에, 몸은 소와 같이 생겼으며, 사람을 잡아 포식합니다. 돌아오소서! 재앙을 불러들일까 두렵습니다」³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幽都」가 귀신이 사는 陰界이며, 土伯은 바로 「幽都」의 統治者이다.

靈魂不滅 觀念은 神話 속에서 인간이나 혹은 神이 죽은 후에 다른 생물로 幻生하는 형태로 반영되기도 하는데, 女娃가 죽은 후에 精衛鳥로, 鯀은 黃龍으로, 望帝는 杜鵑으로 幻化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람의 肉體는 죽었다 하여도 靈魂이 죽지 않았기에 다른 생물로 化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幻化神話의 產生 背景이다.

6. 神話와 宗教祭典

先民들의 宗教에 대한 儀式은 後人들에 비해 더욱 경건하고 정성스러웠으며, 神靈에 대한 祭祀는 原始宗教 儀式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先民들이 祭祀지낸 神鬼는 매우 많았다.

帝臺의 돌은 여러 神에게 기도드릴 때 사용하였다. (帝臺之石, 所以

32) <山海經·西山經>

33) <山海經·海內經>: 「北海之內有山名曰幽都之山。」

34) <楚辭·招魂>: 「魂兮歸來, 君無下此幽都些, 土伯九約, 其角鬬鬣些, 敦版血拇, 逐人踳躄些, 參目虎首, 其身若牛些, 此皆甘人, 歸來恐自遺災些。」

禱百神者也.)³⁵⁾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敵鍾山이라는 곳인데, 帝臺가 여러 神들과
잔치를 벌였던 곳이다. (東三百里, 曰敵鍾之山, 帝臺之所以觴百神也.)³⁶⁾

天下를 가진 자는 百神에게 제사를 드렸다. (有天下者祭百神.)³⁷⁾

여기에서 '百神'은 여러 神을 통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先民들이 제사한 神 가운데에는 神話 중의 神 또한 적지 않아서 마치 고대 회람인들이 제사지낸 제우스가 바로 神話 중의 天神인 것과 같다. 《山海經·中山經》에는 神 熏池, 神 武羅, 吉神 泰逢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세 神은 완전히 神話 중의 신이지만, 그들 또한 사람들의 후한 제사를 받았으니, <中山經>에는 「泰逢, 武羅, 熏池 三位의 神에게 祭祀드릴 때 숫양 한 마리의 四肢를 찢어 제물로 하고 吉玉을 바친다. 다른 二神의 경우 한 마리 숫닭을 땅에 묻으며 젓메살로는 찰벼를 쓴다」³⁸⁾라고 하여 그들에게 제사할 때에 사용한 祭品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河伯은 黃河의 神으로 中國 古代 神話 중의 유명한 神이다. 그러나 殷虛 甲骨文 가운데 河伯에게 제사드린 것과 관계된 기록이 매우 많다.³⁹⁾

이상의 예들은 神話 속의 神 중에서 상당수는 또한 宗教의 神으로서 사람들의 제사를 받았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祭祀儀式 중에 노래와 춤이 있는데, 이는 바로 娛神行爲이다. 歌舞는 또한 神話와 관계가 있는데, 《楚辭·九歌》는 楚族의 祭神儀式 중의 樂歌로서, 그 안에는 神話 성분이 매우 농후하다. <九歌>에서 노래한 神에는 天帝, 日帝, 雲神, 山神, 河神, 湘水의 神, 司命의 神과 鬼雄이 있는데, 이러한 神鬼들은 대부분이 神話 중의 神이다.

35) 《山海經·中山經》

36) 《山海經·中山經》

37) 《禮記·祭法》

38) 《山海經·中山經》: 「其祠泰逢·熏池·武羅皆一牝羊副, 要用吉玉. 其二神用一雄雞瘞之. 糝用餘。」

39) 同註2) p77 참고.

IV. 맺음말

先民들에게 있어서 神話와 原始宗教는 확실한 구별이 없었다. 어느 神에 대해 그를 제사지내고, 그에게 기도하면 그는 宗教的 神이 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 그는 곧 神話 속의 神이 되는 것이다. 先民들은 神話의 神과 宗教의 神에 대해 독실한 믿음이 있었고, 兩者 모두가 경건한 信仰과 崇拜의 대상이었다. 이는 神話와 原始宗教가 동일한 歷史背景과 認識 根源에서 산생되었기 때문이다.

선민들 뿐만 아니라 後人들도 흔히 神話와 原始宗教를 한 가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神話와 原始宗教에 대해 논할 때에는 늘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神話와 原始宗教가 같은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神話와 原始宗教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결코 본 논문에서 언급한 몇몇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本稿는 신화에 포함된 原始宗教의 성분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바, 神話와 原始宗教의 뿌리는 하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袁珂主編, <中國神話>, 中國民間文藝出版社, 北京, 1987年.
 郭璞注, <山海經>, 商務印書館, 台北, 1986年.
 金寅浩, <巫와 中國文化와 中國文學>, 중문출판사, 대구, 1994年.
 釋聖嚴, <比較宗教學>, 中華書局, 台北, 1969年.
 朱天順, <中國古代宗教初探>, 谷風, 台北, 1986年.
 御手洗勝等著, 王孝廉主編, <神與神話>, 聯經出版社, 台北, 1984年.
 林河等編, <巫風與神話>, 湖南文藝出版社, 1988年.
 宋兆麟, <巫與民間信仰>, 中國華僑出版公司, 北京, 1990年.
 鄭志明, <中國文學與宗教>, 學生書局, 台北, 1992年.
 袁珂, <神話的起源及其與宗教的關係>, <神話論文集>, 淡京文化公司, 台北, 1987年.
 白崇人, <試論神話與原始宗教的關係>, <中南民族學院學報>, 1981年, 第二期.
 陶思炎, <試論神話與原始宗教>, <民間文學論壇>, 1986年 4期.
 潘明枚, <神話與原始宗教源於一個統一體>, <中國少數民族神話論文集>, 廣西民族出版社, 1984年.

- 楊知勇,〈原始宗教與原始文學的精神紐帶〉,《雲南民族學院學報》,1986年 3期.
李申,〈原始宗教的一般發展〉,《世界宗教研究》,1988年 3期.
章虹宇,〈原始巫神(鬼)與神話之神的比較研究〉,《世界宗教研究》,1988年 4期.
朱宜初,〈論原始巫及有關文藝〉,《民間文學論壇》,1986年 6期.